



미사 참례 현황 총 신자 714명 중 주일미사 248명 참례 / 참례율 : 34.73%

SEONGSAN
CATHOLIC
CHURCH

평일미사	토 (5/2)	월 (5/4)	화 (5/5) 송정/내촌/본당	수 (5/6) 본당 / 송정	목 (5/7) 송정 / 본당	금 (5/8) 본당 / 두촌
	17명	12명	73명/14명/15명	12명 / 19명	12명 / 26명	14명 / 9명
주일미사 (5/3)	내촌공소	토요일 저녁	두촌공소	송정공소	교중미사	철정공소
	28명	35명	30명	41명	84명	30명



우리들의 정성 부활 제5주일

SEONGSAN
CATHOLIC
CHURCH

주일 헌금	1,580,000	교무금	1,080,000	감사 헌금	250,000
양성, 복지, 원로	125,000	미래 기금	75,000		

교무금 최원석, 이원일, 김종광, 박희명, 나철순, 허연구, 조성근, 최은희, 김승례, 윤영진, 박광열, 김성현, 이명희, 신성철, 신정호, 권병연, 최재길, 박갑성, 정현희, 정영옥, 이종석, 이정자, 이파랑, 양금례, 신남루

감사헌금 최재길(아오스딩) 50,000 김승옥(크리스티나) 200,000



성전 건축 기금 현황 2026년 5월 8일 기준

SEONGSAN
CATHOLIC
CHURCH

구분	이번 주	2026년 누계
	교무금 납부시 건축기금	406,000
약정 기부	5,590,000	103,760,000
2차 헌금		3,582,950
기타 수입	640,000	17,496,589
타본당 후원		2,602,000
합계	6,636,000	133,974,539
현 잔액	800,822,455	

약정기부 124세대 165,540,000원 중 103,760,000원 납부 (납부율 62.67%)

이민정, 소옥선, 권오순, 김후태, 최윤정, 박순우, 정동주, 김주하, 김승옥, 최정애, 박갑성, 최삼순, 김종광, 이종석, 이천희, 이은순, 김교하

타본당 이희강, 이희건

기타수입 본당 발 엄나무순 판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수호성인 소개



수호성인 선정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는 4월 26일(일), 2027 서울 WYD의 수호성인을 공식 발표하였다.

2027 서울 WYD 수호성인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1920~2005)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1821~1846)와 동료 순교자들 ▲성 프란체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1850~1917) ▲성 요세피나 바키타(1869~1947) ▲성 가롤로(카를로) 아쿠티스(1991~2006)이다.

세계청년대회는 대회마다 청년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성인들을 수호성인으로 정하고, 그들의 삶과 영성을 통하여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2027 서울 WYD 또한 ‘진리·사랑·평화’ 라는 영성 주제에 맞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호성인을 선정하였다.

2027 서울 WYD 수호성인 선정 과정은 2024년 말부터 전국 청소년·청년 및 사목자 대상 설문조사, 후보군 검토, 조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었다.

수호성인 소개 -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20년 폴란드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가족을 모두 잃는 아픔을 겪었고, 젊은 시절에는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 치하의 억압을 겪었다. 이러한 시대적 시련 속에서도 지하 신학교에서 사제 성소를 키워 1946년 사제로 서품되었다. 이후 크라쿠프의 보좌주교와 대주교로 봉사하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여하여 현대 교회의 쇄신과 대화의 길에 힘을 보탰다. 1978년 제264대 교황으로 선출된 그는 재임 중 129개국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1984년에는 세계청년대회를 창설하여 전 세계 젊은이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되도록 초대하였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1년 성 베드로 광장에서 암살 시도를 겪었는데, 이때 성모님의 모성적 손길로 보호받았다고 고백하며 가해자를 용서하였다. 이 일은 그리스도교적 자비와 화해의 정신을 보여 주는 깊은 증언으로 남아 있다.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은 2005년 선종하여 2014년 시성되었다. 교회는 그의 축일을 10월 22일에 기념한다.





수호 성인 기도문

자비로우신 하느님,
 젊은이들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들을 교회로 불러 모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복음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며
 생명의 문화가 자라는 세상을
 함께 이루어 가게 하소서.
 아멘.

수호 성인 상징물: 주교 지팡이

주교 지팡이(crozier)는 주교의 전례 표징 가운데 하나로, 성령께서 맡기신 양 떼를 보호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직무를 상징한다. 특히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주교 지팡이는 독특한 십자가 형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가 보여 준 목자의 영성과 사명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지가 되었다.

수호성인 소개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성 김대건 안드레아는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사제이다. 1821년에 태어나 15세에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마카오로 유학을 떠났다. 1845년 상하이에서 사제품을 받은 뒤 페레올 주교, 다블뤼 신부와 함께 작은 목선 라파엘호를 타고 조선으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박해 시대 선교사들이 조선에 무사히 들어올 수 있는 입국로를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그러나 곧 체포되어 사제품을 받은 지 1년, 귀국한 지 6개월 만인 1846년 새남터에서 순교하였다. 깊은 신앙과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한국 교회의 기초를 세운 성 김대건 안드레아는,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서울에서 거행한 시성식을 통하여 103위 한국 순교 성인 중 한 분으로 시성되었다.

수호 성인 기도문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당신 사랑에 응답하여
 순교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으니,
 저희도 “용기를 내어라” 하신 당신의 말씀을 따라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수호 성인 상징물: 적색 영대

‘적색 영대’는 한국인 첫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순교를 상징한다. 25세라는 젊은 나이에 갖은 고문을 이겨내고 순교의 영광에 이른 성인은 옥중에서도, 박해받고 있는 조선 교우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남기는 등 마지막까지 하느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드러내었다.

수호성인 소개 - 성 프란체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

성 프란체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는 1850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수도 생활을 갈망하였으나,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수녀회 입회를 거절당하는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굳은 신앙과 열정으로 이를 이겨내고,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였으며, 마침내 1880년 예수 성심 선교 수녀회를 설립하였다. 본래 중국 선교를 희망하였으나, 교황 레오 13세의 뜻에 순명하여 소외된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위해 뉴욕으로 향하였다. 그는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대서양을 30차례나 건너며 미국 전역과 남미, 유럽에 걸쳐 고아원과 학교, 병원, 수녀원 등 67개의 기관을 세웠다. 1917년 선종한 카브리니 성인은 1946년 미국 시민권자 가운데 최초로 시성되었으며, 오늘날 이민자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받고 있다. 성인의 기념일은 12월 22일이다.

수호 성인 기도문

모든 이의 하느님,
이민자들의 어머니가 되어
세상에 환대의 모범을 보여 준
성 프란체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를 기억하며 청하오니,
저희도 낯선 이들 안에서 당신을 알아 뵈고
편견과 차별의 장벽을 허물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게 하소서.
아멘.



수호 성인 상징물: 증기선

성 프란체스카 사베리아 카브리니는 더 많은 이웃을 돌보기 위해 배를 타고 대서양을 30차례나 횡단하였다. 증기선은 성인의 선교 열정과 하느님께 굳은 신뢰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온전히 자신을 맡긴 성인의 믿음을 드러낸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수호성인 다섯 분 중 나머지 두 성인, 성 요세피나 바키타와 성 가롤로(카를로) 아쿠티스는 다음 주 주보 별지를 통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